



2017년 8월 13일(제836호) 연중 제19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실 정도로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믿었다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겁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가져다 줍니다. 사람이든, 불확실한 미래든 간에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령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도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의 두려움을 지니고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소유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 두려움,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 하는 일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란 진실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김현우(기브리엘) 신부
태릉(28시타)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1열왕 19,9-11-13ㄱ
- 회 답 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제 2 특 시 로마 9,1-5
- 복음 반포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 복 음 마태 14,22-33
- 영 성 제 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진례를 살다

보편 지향 기도를 바치는 것으로써 이제 말씀의 진례가 끝나면 예물 준비가 시작됩니다. 공동체로부터 빵과 포도주를 손에 든 행렬이 제단을 향해서 나아 갑니다. 빵과 포도주는 생활영역에서, 인간의 노동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한 제물을 준비하는 데는 약간의 빵과 포도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예물로 많은 것을 희사했고 교회는 그것을 교회의 사업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데 사용했습니다.

초세기의 예물 준비는 교우들이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면 부제가 받아서 사제에게 주고, 사제는 그것을 제대에 놓고 바로 감사기도로 들어갔습니다. 4세기 무렵부터 교우들이 증가하면서 예물이 다양해지고 예물봉헌 행렬도 길어지게 되어, 긴 행렬 동안 가만히 있기 보다는 예물 봉헌에 알맞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예물은 기름, 초, 기타 자선 예물 등으로 더욱 다양해졌고, 11세기 이후 화폐제도가 발달하면서 예물 봉헌이 현금으로 대체되어 간편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물 봉헌을 제물 봉헌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자연적 심리이다 미사의 제사적 의미를 강조하는 신학자들에 의해 예물 준비가 제물 봉헌 행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7세기에 이르러서는 교우들의 예물 자체가 제물, 제사 형식이 되고 명칭조차도 ‘봉헌 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미사 중에 봉헌하는 본 제물은 교우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이 제물은 감사기도 중에 십자가의 제물로 축성되어 봉헌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의 명칭은 ‘예물 준비’이지 ‘제물 봉헌’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미사 통상문 예규(rubrica)는 ‘예물 준비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고 “사제는 제대에 가서 빵이 담긴 성찬을 조금 들어 올리고 기도한다.”고 지시하고 마찬가지로 성작을 두고 “사제는 성작을 조금 들어 올리고 기도한다.”고 지시합니다.

사제는 교우들이 가져온 예물(빵과 포도주)을 받아 제대 위에 정중하게 놓고 “은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예물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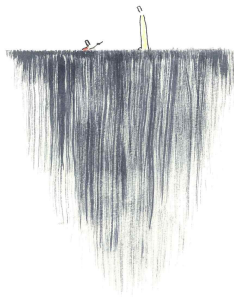
받으소서...” 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빵과 포도주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자연의 혜택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노동과 희생, 인간적인 허약이나 부족한 점까지도 포함한 우리 자신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사제는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빵과 포도주, 기름 등을 받고 난 후 손을 씻었던 과정을 시대가 흐른 후 그 흔적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는 정화의 기도를 바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상징으로 손을 씻습니다.

초세기에는 교우들이 자기 집에서 직접 예물을 가져와서 사제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 많은 예물을 만진 사제는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한 성찬이나 성반, 그리고 성작에 제병과 포도주를 담아 오기 때문에 손을 씻을 필요가 없지만 몸과 마음을 깨끗이하여 성찬에 임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 손 씻는 예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바치는 기도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는 내적 정화를 청하는 시편25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14세기경에 로마 전례에 들어 왔습니다. 이어 사제는 교우들을 향해 지금 바치는 이 예물이 하느님께 의합한 예물이 되도록 하자는 기도에도 초대와 교우들의 화답이 있는 후, 예물 준비를 마감하며 동시에 곧 있을 성찬 전례를 준비하는 「예물기도」를 바칩니다.

예물기도는 본기도와 성찬 후 기도(영성체 후 기도)와 더불어 주도자인 사제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사제는 이 기도를 과거와는 달리 크게, 그리고 팔을 펼치고 바칩니다. 항상 되풀이 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예물과 기도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자신의 제사도 받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축일에는 자주 그날의 신비를 일깨웁니다. 이상으로 본격적인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한 예물 준비는 끝납니다. <다음 주에 계속>

최창덕 F.하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묵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바람이 불자,
두려웠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임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임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외칩니다.
“주님, 오시어,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상화이야기

최후의 만찬



지오바니 피에트로 리즐리(활동시기: 1508-1549)
1520년 作, 캔버스 위 유화, 189.5 X 120 cm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모작품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식당 벽화에 그려진, 아마도 모든 미술사 작품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의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원작 대신, 이 작품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알려진 타 화가의 작품을 통해 원작을 소개하고자 한다. 원작품은 시대에 유행하던 젓은 반죽 위에 그리던 템페라화가 아닌, 마른 반죽 위에 그려져 (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 기법을 시험 중이었다), 완성 즉시 심각하게 손상되기 시작하였다.

미술사가들은 이 그림이 최후의 만찬 장면 중 어느 장면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예수님이 제자들 중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직후로, 제자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일견 소박해 보이는 이 방에는 중앙의 예수님 뒤에 열린 창문이 보이며, 그 뒤로 확장된 배경이 보인다. 창문 위 아치가, 예수님의 휘광을 대신하며, 중앙의 예수님을 기점으로 각기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제자들이 그려져 있다.

우선 양손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은 (손등이 하늘로) 포도주가 담긴 잔, 혹은 접시를 향해 손등을 하늘로 하신 채 오른쪽으로 뺀고 계시고, 동시에 이 접시를 향해 손을 뻗친 제자는, 오른손에 돈다발을 움켜진 유다이며, 그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져 있다. 예수님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며, 유다 옆에 앉아 있으나, 사도 요한의 어깨너머로 손가락을 뻗친 상태에서, 오른손에는 칼을 움켜쥐고 있는 베드로 성인이 보인다.<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9주일: 상례오 장례시 신부

◆ 교구장 동정

- 백두산(21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8월 13일(주일)
- 제주교구 부교구장 서품식
때·곳: 8월 15일(화) 20:00, 제주 삼위일체 성당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서품식
때·곳: 8월 17일(목) 14:00, 서울 명동대성당

◆ 신지 진수 조사 관련 교구 안내

- 기간: 8월 1일(화)-31일(목) ※ 부대공문 필독
- 방법: 국방인사정보체계 입력
- 신자기준: 영세자, 예비자, 천주교 관심자
(실제 종교 활동 여부와 불일치 가능)
- 홍보: 지휘관들에게 전수조사 홍보
- 주의사항: 아이디는 군번, 비번은 주민등록번호
이므로 조작되는 일 없도록 주의.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